

# 지자체 설익은 정책, 서민 3000명 눈물 뺐다

## ■ 영광 대마산단 전기차 업체 주식사기 피해 확산

영광 대마산단 내 전기차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한 최대의 사기극에 수천 명의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

소액 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액만 500억원, 피해자가 2900명을 넘어섰다. 투자 유치에만 매달려 정확한 기술 보유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만 부각시켰던 전남도와 영광군의 설익은 정책도 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600만원 짜리 고소 사건에서 500억대 대형 사기 사건으로=영광경찰

은 4일 대마산단단지 내 전기차업체에 E사의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한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피해자가 294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투자자들은 저투자로 단기간 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사 E사의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장외주식을 3000~5000원에 사들였다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액만 509억원에 달한다.

예초 이번 사건은 600만원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김모(52)씨의 고소로 시작됐다.

지난해 초 광주서부경찰에 접수될 당시만 해도 일반적 사기 사건으로 인식됐지만 관할 지역인 영광경찰로 넘어간 뒤 수천개의 계좌 추적을 통한 경찰의 끈질긴 수사를 거치면서 대형 사기사건으로 비화됐다.

이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피해 사실을 감추던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무분별한 투자 유치, 피해 키웠나=영광경찰은 전기차 생산업체인 E사 대표인 소모(6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기차업체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투자자를

전남도와 투자협약 체결 MB 기공식 참석 홍보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 3000~5000원에 팔아 피해액 509억으로 늘어

피어 수 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E사 자회사임을 사칭한 B회사 간부 정모(58)씨 등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그동안 E사 자회사임을 사칭한 임원들이 저지른 사기 사건일 뿐 E사와

는 관련 없다며 선을 그어왔었던 영광군과 전남도 등은 당혹감이 역력하다.

E사는 '전기차 선도시'로 선정된 영광군이 적극 나서 대마 산단에 유치한 기업으로, 지난 2011년 2월 전남도에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신개념 전기차 직구동시스템 생산 공장' 준공식도 개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고 영광군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부지 매입비의 7%인 입지보조금·시설투자 보조금 등 11억3800만 원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E사는 지난해 4월 제1공장 준공 당시 자사제품에 대해 '네덜란드 교통부 산하 위스퍼 재단 소속 기업인 이트렉선사와 공동으로 13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완성해낸 것'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E사가 네덜란드 교통부 산하 재단 소속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허위 사실로 투자 유치가 나섰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의자들의 감언이설에 자치단체의 부풀려진 청사진까지 맞물리면서 피해가 컸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윤석 총장 적부심 기각

2019 세계 수명연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 보증서 조작사건과 관련된 구속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유치위 마케팅팀 6급 직원 한모(여·44)씨에 대해 변호인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관사 최인규)는 3일 "김 사무총장 등에 대해 청구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

# “119면 다냐?”

## BMW 몰던 대학생 상향등 불만 구급차에 돌진



청소년 힐링강좌

광주 '학생사랑협의회'는 3일 광주 일신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자살 등의 문제를 다룬 생명존중 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힐링강좌'를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어제 새벽 광주 화정동

상향등을 켜 채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중앙선까지 넘어 119 구급차를 향해 달려드는 등 위험 운전을 한 '막무가내' 20대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소방차가 환자를 이송하고 소방서로 돌아가던 중 발생했는데, 구급차 운전자가 급하게 멈춰서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119구급차를 향해 운행하는 등 특수차량운행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대학 휴학생인 문모(25)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새벽 2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마주 오던 서부소방서 업무 119안전센터 구급차량을 향해 돌진하는 위험 운전을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 119구급차량은 인근 병원에 긴급환자를 이송하고 안전센터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문씨는 마주 오던 구급차량 2m 앞까지 돌진하다 방향을 틀어 아파트 단지로 달아났고 위험을 느낀 구급차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서면서 사고를 모면했다.

문씨는 인근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을 본 119 구급 차량이 따라가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에서 문씨는 구급차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해 화가나 위험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는 없었지만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 위험 운전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처벌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비록 "폭행이나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돌진해 상대 차량을 위협할 경우에는 차량이 흥기가 될 수 있다"며 조사를 진행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네가 뭘데 때려?”

## 진도서 50대, 이웃집에 불질러 ... 인명피해는 없어

진도경찰은 3일 자신을 때린 데 불을 쬐고 이웃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진도군 진도읍 박모(52)씨

의 단독주택 집 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주택 내부(33㎡)를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집에서 잠을 자던 박씨와 가족들은 화재 뒤 곧바로 탈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최근 직장 동료인 박씨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박씨에게 폭행당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광주·전남 10~13세 '소년 범죄' 1000명 넘었다

### 경찰청 공개 자료

지난 2년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죄'가 6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 형사미성년자(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1~2012년 소년범죄 현황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강도·강간·방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소년범죄는 2011년 322명, 2012년 304명으로 2년간 626명에 달했다. 살인범은 없었다.

범 유형별로는 강도 58명, 강간 363명, 방화 205명으로 강간의 비율(42.0%)이 높아 아동이 저지르는 범죄적 역시 심각한 수준임

이 드러났다.

광주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가 2011년 436명에서 지난해 699명으로 크게 늘었고 전남도 291명(2011년)에서 449명(2012년)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882명, 인천 1460명, 부산 1292명 등의 순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충간소를 말싸움 끝 폭력 휘둘러

○충간소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이 욕설한 데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28)씨는 지난 2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A빌라 3층에 사는 한모(여·42)씨와 충간소를 문제로 시비돼 말싸움을 하던 중 한씨가 욕설을 내뱉자 화가 났던 정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정씨는 "한씨가 서랍 여닫는 소리가 크더마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욕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오천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 성사까지!**

(백영숙 이사, 유경선 부원장 출연)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초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초혼		재혼
남	女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5~64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70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부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